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9호 [부제 제25963호] 주일 107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 조종친선의 새로운 장을 펼친 역사적인 방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동지의 초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은 지금 우리 인민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전세계에 대박문을 일으키고있다. 천만군인이 공화국상징 일흔표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명적성과 맞이하기 위하여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중국방문으로 조종친선관계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주셨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는 그 바르신 가운데서도 혁명적의리를 변함없이 지기시어 애국헌신의 장성을 수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전제 군대와 인민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은 조종친선의 오랜 전통을 빛내이고 조종 두 나라 관계를 대를 이어 훌륭히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 역사적사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종친선의 귀중한 대외적 결실로써 조종친선에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은 조종친선이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로 추동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전례없이 직접하고있는 조선반도의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신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두 당, 두 나라의 친선 관계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은 조종친선을 대를 이어 귀중히 여기고 이어가야 할 중요한 의무로 여기시고 역사적인 첫 중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만사화주의책등도 함께 손잡고 지부서버리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종친선의 오랜 역사적전통을 더욱 빛내이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셨다. 조종친선의 역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의 령도자들과 맺으신 동지적우의가 뚜렷이 새겨져 있고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긴밀히 지지협력해오신 조종친선의 진실의 정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때때로 맺어 줄 수 없는 친선이기에 역사의 온갖 돌풍속에서도 굳건히 이어져왔고 사건의 언덕을 넘으면서도 그 본태를 잃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조종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놓으기 위하여 이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을 단행하시었다.

조종 두 나라 선대령도자들사이의 숭고한 동지적의리와 믿음에 떠날데려 조종인민은 오래전부터 대외협력자들을 반대하여 어깨걸고 함께 싸웠다. 조종 두 나라의 대지우에는 형제적인의리의 자유와 해방, 평등과 단결을 위하여 창군도 생생하고 투쟁이 바친 유혈투쟁의 무수한 희생성세대의 피가 전하여 솟아나왔다.

인민의 새 사회가 세워진 이후 장구한 기간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공동의 투쟁속에서 두 나라 당과 인민은 긴밀히 지지협력해왔으며 이것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나라들의 구체적 실정과 환경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조종인민의 우애와 서로 맺어 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았으며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 오히려 두

나라사이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것이 인민들의 행복을 이룩하고 지역의 평화화환경과 안정을 수호해나가는 데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라는것이 다시금 확증되었다.

친선은 일제기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조종친선의 뿌리를 돌고 돌고 심혈을 기울여오셨다. 조종친선의 뿌리를 돌고 돌고 심혈을 기울여오셨다. 조종친선의 뿌리를 돌고 돌고 심혈을 기울여오셨다.

오늘 중화대지에서는 새로운 변혁과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현시기 중국인민은 당 제 19차대회가 제시한 전략적목표에 따라 《두개 백년》목표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두 정령하고있다.

중국인민은 습근평동지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새시대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능수능란을 이룩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이것을 자기 입처럼 기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속에 접한 우리 인민은 믿음의 신심과 락관을 때때로 오는 총공세에서 새로운 승리를 인아를 불타는 맹목로 심장을 끓이고있다.

조종친선의 자랑찬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하고 수호하고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혈을 바쳐 수호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형제적인의리의 늬를 더욱 존중하며 보다 생기고 활력있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

## 크나큰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안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철석의 의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

### 당을 받드는 역센 무쇠기둥이 되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은 우리 금속공업전선계 정무원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조종친선관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더욱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먼길을 다녀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을 우리로써 우리는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충직하게 이어가시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다시금 고집히 절감하였다.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하게 급변하는 현시기 아시아지역 나라

금속공업생산단위들에 령을 집중하여 생산을 높여나갔다.

이와 함께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술혁신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 김책제철원형기업소와 황해제철원형기업소, 함라제철원형기업소, 무산광산원형기업소와 은골, 제명광산의 돌진기술적도태를 본뜬이 다져나갔다.

그러하여 공화국상징 일흔표가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이어 금속공업부문에서 당을 떠날데려 무쇠기둥을 더욱 억척같이 세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높은 사업성으로 빛내어나가겠다.

금속공업상 김철길

### 청년전위들의 전투적기질과 본태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소식에 접한 우리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북받치는 격정과 흥분으로 새차게 끓어오르고있다.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존귀하신 영상을 우리로써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신분을 우리 혁명의 전두에 모시고있는가를 다시금 가슴 뿌듯히 감당하고있으며 당을 따라 분마로 힘차게 나아가길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충진군대로서 최후대입이다.》

우리는 청년들을 충진군대로

### 대대로 우리는 우리 인민의 수령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조종친선관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더욱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먼길을 다녀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을 우리로써 우리는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충직하게 이어가시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다시금 고집히 절감하였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숭배하고 경사응유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앞에 단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 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능수능란 과학연구성과를 높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

우리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당과 인민이 바라고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 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능수능란 과학연구성과를 높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

###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조종친선관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더욱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먼길을 다녀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을 우리로써 우리는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충직하게 이어가시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다시금 고집히 절감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능수능란 과학연구성과를 높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능수능란 과학연구성과를 높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능수능란 과학연구성과를 높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능수능란 과학연구성과를 높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능수능란 과학연구성과를 높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능수능란 과학연구성과를 높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

### 전초병의 본분을 다해가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조종친선관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더욱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먼길을 다녀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을 우리로써 우리는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충직하게 이어가시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다시금 고집히 절감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능수능란 과학연구성과를 높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능수능란 과학연구성과를 높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능수능란 과학연구성과를 높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능수능란 과학연구성과를 높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소식에 접하고 크나큰 격정에 넘쳐있다. -평양화력발전원형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 동규 찍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조종친선관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더욱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먼길을 다녀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을 우리로써 우리는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충직하게 이어가시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다시금 고집히 절감하였다.

# 당의 전투적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 하고 삼지연군구리기전투에서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자

## 216사단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쫓기모임 진행

혁명적인 용광로로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빛내여가는 인민군인의 강용한 기상이 백두전주에 새겨져 내려오고있다.

지난해 12월 삼지연군 용솟음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을 로동당시대의 분명이 융축된 현대적이며 살기 좋은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건설시키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삼지연군구리기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당의 전투적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216사단의 전제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우리의 인민이 마음의 태를 묻고 사는 정신적고향인 삼지연군을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거창한 전투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새겨져 지어올릴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삼지연군구리기에 관하여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216사단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쫓기모임이 29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의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오수용동지, 로동당조직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책임일꾼들, 도당위원장들, 성, 중앙기관, 무역기관 일꾼들, 삼지연군의 당, 정전기관 일꾼들, 216사단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보고를 박봉주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지난해 12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가 깃들어있고 필승불패하는 조선의 정

신적기둥이며 백질불굴하는 사상적기둥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삼지연군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산간문화도시로 건설시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과업들을 확실히 밝혀주시였으며 삼지연군구리기에 불타는 충성을 다 바쳐가고있는 건설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전례적인사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대상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강추위속에서도 불로크, 휴관생산과 농사무수출, 수백종의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을 벌이던데 대해 격려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실제기술과 과학자, 기술자들도 긴장된 전투를 벌여 읍지구의 배치도와 조감도를 빠른 시일안에 작성해서 산세설계를 기본적으로 끝낸데 이어 대상건설제안과 기술설계를 마각 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불과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삼지연군구리기를 힘있게 다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실제기술과 과학자, 기술자들도 긴장된 전투를 벌여 읍지구의 배치도와 조감도를 빠른 시일안에 작성해서 산세설계를 기본적으로 끝낸데 이어 대상건설제안과 기술설계를 마각 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불과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삼지연군구리기를 힘있게 다

그렇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든든히 마련될수 있을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알아서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훈인 삼지연군을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이 되게 꾸리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보고자는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을 천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군인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삼지연군구리기에 대의비와 대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불굴의 정신력과 드센 공격적충돌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로 일세출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무적의 기술혁신의 날과 시공방법들의 적극 받아들임과 실비와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화선선진, 화선선들을 공세적으로, 전공적으로 벌려 대중의 정신

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전투적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게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군인건설자, 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용대한 뜻을 높이 받들고 삼지연군을 훌륭히 건설시키기 위한 투쟁에 총동력, 총매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216사단 참모장 박은동지, 백두산영웅청년단 자강도연대 대대장 김은경동지, 조선인민군군관 비명일동지, 922건설리단정양시연대 정치부장 지광원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의 전투명령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영예로운 임무를 기어이 앞당겨 수행할 불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기적창조의 열차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든 지휘관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기적과 위훈창조에도 이끌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이 거둔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통이 쉰 면우공적작전을 벌일수 있도록 공적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전투조직과 지휘, 훈련과 실비, 자재보장, 후방공급사업을 제고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추동력으로 하여 풀어나가며 천년백년, 만년백공의 힘에서 모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노동자대원들을 백두전주로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한결같은 믿음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파란불 청년노동정신으로 삼지연군구리기에 세상을 놀라우는 영웅청년화를 다시 한번 창조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단위별경쟁, 단계별경쟁, 공적별경쟁, 수송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따라잡고, 따라배우기, 경쟁교란의 열의의 불길속에 계속혁신, 계속진전의 발구름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혁명의 성지를 우리는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당정책관철의 계일기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드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전국 학생소년들의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대 만경대 도착

##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 열렬히 환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95돐을 맞아 진행되는 전국학생소년들의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대가 유시길은 만경대에 도착하였다.

지난 16일 포정을 출발한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찌되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열어주신 로정을 따라 부무당당히 행군하였다.

답사행군과정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지나셨던 혁명의 끈뜻과 열렬한 조국애, 위인적봉모를 가슴깊이 체득하면서 회정, 장강, 강계, 전선, 함산, 구양등을 지나 재까지 800여리길을 두 도로로 행군한데 이어 열차 타고 29일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날 평양역으로부터 짧은거리, 광복거리, 만경대에 이르는 연도는 답사행군대를 맞이하기 위해 손에손에 꽃다발들을 들고나온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차림되었다.

답사행군대가 수도의 거리에 들어서자 환영의 꽃바다가 펼쳐졌다.

청소년학생들이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평양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에게 축하의 꽃부케를 걸어주었으며 근로자들이 격려하게 나아가는 행군대원을 향해 꽃다발을 흔들어주었다.

길가던 시민들도 고품을 멈추고 손을 저어주었으며 아파트의 창가에서 어린이들과 아이들까지 강렬한 의지와 집단주의정신으로 높은 산, 밀한 평을 넘으며 천리행군길을 달려온 답사행군대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었다.

평천구역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에 기세승천한 답사행군대원들은 보훈장, 만경대구역안의 소년단소고대와 고급중학교학생취약자들이 주축하는 막대한 장안과 노래선물에 발걸음을 맞추며 행군을 다그쳤다.

근로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답사행군대원들은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에 들어섰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위봉동지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동동지, 관계부관, 청년동맹일군들이 답사행군대원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행진하였다.

잊지 못할 95년혁사의 그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불어시어오던 만경대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원이 무사히 천리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셨다는 보고를 울리게 된 영예와 긍지, 환희는 기쁨에 넘쳐있었다.

전국학생소년들의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대 만경대 도착모임이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만경대혁명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소년단원들의 학업성적

의 높이이자 앞날의 우리 조국의 국력의 높이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가슴깊이 새기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지미체를 갖춘 참된 소년혁명가,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화국상징 일흔둘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학습과 조직생활, 품은일하기운동에서 자랑할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준비태나가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95돐을 맞아 진행되는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대양기를 소년단기앞에 휘날리며 주제혁명의 행군길을 영광찬란한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배우고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소년단원들의 학업성적

의 높이이자 앞날의 우리 조국의 국력의 높이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가슴깊이 새기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지미체를 갖춘 참된 소년혁명가,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화국상징 일흔둘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학습과 조직생활, 품은일하기운동에서 자랑할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준비태나가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95돐을 맞아 진행되는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대양기를 소년단기앞에 휘날리며 주제혁명의 행군길을 영광찬란한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배우고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소년단원들의 학업성적

### 이천군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이천군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입건들과 종업원들을 지역자재의 소유자들로 훈련시키워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방방본본이 진행하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항일빨색산화가 자들의 회상기학습을 신속있게 진행하여 그 실효를 높이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불은 혁명정신과 그불이 쌓아올린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은 우리 인민이 영원히 따라배우고 계승해나갈야 할 귀중한 재보입니다.』

지난해 8월 공장개건보수가 진행될 때였다.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비롯하게 꾸리기 위한 위대한 공사였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자 대중의 열의가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생산은 생산대로 밀고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다나니 로력은 몇몇길진 견딜수없고 걸리는 지체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었던것이다.

이렇게 되니 일부 종업원들의 마음이 흔들리었다. 자재의 힘으로는 안될것 같다고 그들은 말했다.

이를 놓고 방도를 모색하던 김학룡초급당위원장의 머리속에는 문득 어느 한 당세포에서 열었던 회상기연구발표모임이 떠올랐다.

그때 작업반에는 긴급한 전투과업이 제기되었다. 온 작업반이 맡겨진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총동력전에 진입했다. 그런데 그들앞에는 뜻하지 않은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중요한 설비중의 하나인 작업유기가 벗어났었다. 그것을 수리하려면 며칠이 걸려야 한다 하는것이 기능공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바로 그때 당세포가 조직한 사업이 회상기연구발표모임이었다.

항일빨색산화가자들의 회상기《혁

명의 요구라면 못배워 일이 없다》를 가지고 목표사업이 진행되었다. 김지우의 소유자들로 훈련시키워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방방본본이 진행하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항일빨색산화가 자들의 회상기학습을 신속있게 진행하여 그 실효를 높이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불은 혁명정신과 그불이 쌓아올린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은 우리 인민이 영원히 따라배우고 계승해나갈야 할 귀중한 재보입니다.』

지난해 8월 공장개건보수가 진행될 때였다.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비롯하게 꾸리기 위한 위대한 공사였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자 대중의 열의가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생산은 생산대로 밀고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다나니 로력은 몇몇길진 견딜수없고 걸리는 지체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었던것이다.

이렇게 되니 일부 종업원들의 마음이 흔들리었다. 자재의 힘으로는 안될것 같다고 그들은 말했다.

이를 놓고 방도를 모색하던 김학룡초급당위원장의 머리속에는 문득 어느 한 당세포에서 열었던 회상기연구발표모임이 떠올랐다.

그때 작업반에는 긴급한 전투과업이 제기되었다. 온 작업반이 맡겨진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총동력전에 진입했다. 그런데 그들앞에는 뜻하지 않은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중요한 설비중의 하나인 작업유기가 벗어났었다. 그것을 수리하려면 며칠이 걸려야 한다 하는것이 기능공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바로 그때 당세포가 조직한 사업이 회상기연구발표모임이었다.

항일빨색산화가자들의 회상기《혁



항일선철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 수령의 유흔, 당정책관철의 앞장에서 뚜렷한 자욱을 남긴 실천가

## 합주대성식사도구공장 지배인이었던 리철동무에 대한 이야기

당정책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진 일꾼들은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

시대의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한 일꾼의 모습이 있다. 합주대성식사도구공장 지배인이었던 리철동무이다. 그는 지난 17년간 지배인으로 사임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 주신 유흔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자제의 기술력만을 본뜬히 파괴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여 생산성을 훨씬 높였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활동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진행하여 공장의 물질기술적위태를 근본적으로 고쳐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기업은 현대화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하면 완강하게 내달려 끝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수령의 유흔과 당정책관철의 앞장에서 전진하는 데오의 기수가 되어 달려나간 리철동무는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30분경, 인신으로 이어진 그의 심은 오늘날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일꾼은 수령의 유흔과 당정책관철을 인身的 목표로 정하고 끝까지 집행하는 실천가, 밀리 앞을 내다보며 사업을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진행해나가는 혁명적이어야 하는 것을 새겨주고 있다.

리철동무가 지배인으로 임명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었다. 다른 기관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한해 공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책임진 일꾼으로 사임하게 된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공장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보았다. 설비들이 무질서하게 들어

있던 작업장과 무질서한 리튬 동무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 있는 한편 기술자대렬을 무리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그의 손에는 늘 책이 들려다녔고 공장에 들어온 기술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여러 대학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신발상이 필요함을 알리기도 했다. 기술자, 기술공들과 함께 현대화수준이 높은 단위들에 찾아가 시야를 넓히었고 그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심하던 밤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지배인으로 사임을 시작한 첫해에 공장은 말려진 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리철동무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신발을 계속 조여오고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공장기술력의 힘으로 언뜻 언뜻, 광공정의 설비들을 제비처럼 날아다니며 배양기를 제작설치하여 유해물 현저히 줄이게 되었다.

공정자동화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리철동무는 자제들의 자제들을 데려오기 위해 여러 대학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신발상이 필요함을 알리기도 했다. 기술자, 기술공들과 함께 현대화수준이 높은 단위들에 찾아가 시야를 넓히었고 그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심하던 밤과 노력을 기울였다.

《나도 한몫 끼어야 해서 좀 공리해본데 동무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며 그가 퍼놓는 도면을 들여다보던 기술자들도 역시 관심이 쏠려나왔다. 착상기 개발하고 공정설정에 적절한 합리적인 방안이었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세척기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기대어린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며 묻는 기술자들에게 리철동무는 어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정어느 착상이 떠오르더군요.》

그의 이 한마디의 말이 기술자들에게 인가준 충격은 컸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을 생각하며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사색을 거듭하고 무반의 실천해가는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삶의 지향은 얼마나 고결한 것이었나.

자나깨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 다시 찾아오시면 기쁨을 드릴 한마음으로 장군님의 현지지도와정을 관철하며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사색을 거듭하고 무반의 실천해가는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삶의 지향은 얼마나 고결한 것이었나.

리철동무는 그 구조를 자기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다. 공장에서 자제로 형타생산설비들을 그르히 갖추어 슬거락, 저가력하는 물론 전국의 식료공장, 신발공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형타들을 생산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광아, 규산소다 등 6종에 30여가지 제품들을 개발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자력강성의 혁명적임을 체질화하고 구현해는 리철동무의 불같은 열정과 일본새가 깃들었다.

일꾼들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현대발전시켜나가는 한다는 당의 의도에 맞게 머리를 쓰고 피라게 노력하는 것은 리철동무의 몸매 속엔 사명감이 깃들었다.

리철동무에게 있어서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계기와 공정은 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흔관철에 달렸었다. 일꾼들이 수령님들의 생활을 침범하는 것은 곧 수령님들의 유흔관철을 침범하는 것이었다. 리철동무가 약속해준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수령님들의 유흔관철은 실패한 것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흔을 필생의 목표로 간직하고 이 한몸 다 바쳐서라도 기여이 관철하겠습니다.》

은 나라 인민들과 함께 합주대성식사도구공장 종업원들도 피눈물의 바다에서 땀처럼 아꼈

# 혁명적인 총과 노래로 흥성이는 일터

## 평양무래도전차공장에서

얼마전 우리는 당의 크나큰 은총속에 새로 개건된 평양무래도전차공장을 찾았다.

새벽의 푸레도전차들이 눈부신 빛을 뿌리며 구레의 한쪽에서 정렬하여 서있는데 마한한목에서는 경쾌한 노래를 들려와 맞추어 흥겨운 춤이 펼쳐지고있었다.

오전직업을 끝마친 노동자들이 직장별로 군중무용을 시작할 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총과 노래는 로동을 흥겹게 하여 주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다.》

방송선전에서 울려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서로 경정이나 하듯 직정별로 원을 크게 지으면서 춤을 추는 이로 통정제급의 모습은 누구나 알것없이 희열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군중무용보급책임자들의 열정적인 총과 노래는 불만 없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멋진 춤과 악단을 뽑아내는 처녀, 흥과 춤과 나이지속한 로동자들의 건드린 뿔통도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새벽의 푸레도전차생산으로 드비할 이로 통정제급이 군중무용, 대중물동체조, 건강레전도를 하면서 생활을 실천적으로, 문화정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도 앞장에 서고있다는것이 대변에 일었다.

《로동이 그대로 노래가 되고 춤이 되는 일터에서 어찌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총과 노래의 힘이다. 《총과 노래》 등과 같이 서정적이면서 흥취가 나는 곡들을 무척 좋아하였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총과 노래는 로동을 흥겹게 하여 주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다.》

방송선전에서 울려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서로 경정이나 하듯 직정별로 원을 크게 지으면서 춤을 추는 이로 통정제급의 모습은 누구나 알것없이 희열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총과 노래의 힘이다. 《총과 노래》 등과 같이 서정적이면서 흥취가 나는 곡들을 무척 좋아하였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총과 노래는 로동을 흥겹게 하여 주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다.》

방송선전에서 울려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서로 경정이나 하듯 직정별로 원을 크게 지으면서 춤을 추는 이로 통정제급의 모습은 누구나 알것없이 희열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언제나 다목적적인 분위기속에 문화정적으로 살아 일해나가는 이 공장 로동체계의 전진하고 교상한 정정제급이 참으로 돋보이고있다.

어느덧 군중무용은 끝났지만 방송선전에서는 《사회주의전진가》, 《우리 일날 밝다》의 노래선율이 공장의 동통제급을 더 높은 기적정조대로 고무추동하며 힘있게 메아리쳤다.

혁명적인 노래와 춤을 사랑하고 다목적적인 문화정적인 생활속에서 문명의 세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영웅적 집결정-집결정로통제급이 있어 사회주의강성조선의 밝은 앞날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수정

## 동대원구역종합식당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군중무용을 생활화하면 언제나 맑고 명랑한 기분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총과 노래는 로동을 흥겹게 하여 주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다.》

방송선전에서 울려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서로 경정이나 하듯 직정별로 원을 크게 지으면서 춤을 추는 이로 통정제급의 모습은 누구나 알것없이 희열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총과 노래의 힘이다. 《총과 노래》 등과 같이 서정적이면서 흥취가 나는 곡들을 무척 좋아하였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총과 노래는 로동을 흥겹게 하여 주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다.》

방송선전에서 울려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서로 경정이나 하듯 직정별로 원을 크게 지으면서 춤을 추는 이로 통정제급의 모습은 누구나 알것없이 희열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총과 노래의 힘이다. 《총과 노래》 등과 같이 서정적이면서 흥취가 나는 곡들을 무척 좋아하였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총과 노래는 로동을 흥겹게 하여 주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다.》

방송선전에서 울려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서로 경정이나 하듯 직정별로 원을 크게 지으면서 춤을 추는 이로 통정제급의 모습은 누구나 알것없이 희열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얼마전 우리는 구장군을 168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정영로명인 리영희로인이 보내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저는 언제나 아흔고개에 들어선 정영로명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년로한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에 넘칠 수 있는가 하고 자주 묻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영로명 불을 극진히 아끼고 보살피는 것과 국가의 시책을 잊고 저를 위해 친형제의 정을 기울여주는 고마운 이웃들이 있기때문이라고 말할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를 읽어내려가다 보니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향기가 가슴을 그들며하게 채워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적으로 전행로명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방위전

나이와 직종에 관계없이 단 위별로 임의의 성원들을 선정하여 군중무용관정을 조직하였고 정기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이 나날 대중의 경영의까지 합쳐져 군중무용은 더욱 활기차고 진행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임의에는 혁명정적사와 향만이 차넘치게 되었다.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어깨를 들며서 느는 단명한 춤과 악을 펼치던 한 종업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군중무용을 하고나면 쌓였던 피로가 흔적없이 사라지고 새힘이 솟습니다. 생활의 정서를 더해주는 우리의 춤과 악이 제일입니다.》

정말 군중무용을 생활화하는 것은 우리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본사기자

##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얼마전 우리는 구장군을 168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정영로명인 리영희로인이 보내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저는 언제나 아흔고개에 들어선 정영로명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년로한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에 넘칠 수 있는가 하고 자주 묻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영로명 불을 극진히 아끼고 보살피는 것과 국가의 시책을 잊고 저를 위해 친형제의 정을 기울여주는 고마운 이웃들이 있기때문이라고 말할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를 읽어내려가다 보니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향기가 가슴을 그들며하게 채워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적으로 전행로명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방위전

나이와 직종에 관계없이 단 위별로 임의의 성원들을 선정하여 군중무용관정을 조직하였고 정기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이 나날 대중의 경영의까지 합쳐져 군중무용은 더욱 활기차고 진행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임의에는 혁명정적사와 향만이 차넘치게 되었다.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어깨를 들며서 느는 단명한 춤과 악을 펼치던 한 종업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군중무용을 하고나면 쌓였던 피로가 흔적없이 사라지고 새힘이 솟습니다. 생활의 정서를 더해주는 우리의 춤과 악이 제일입니다.》

정말 군중무용을 생활화하는 것은 우리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본사기자

# 자력갱생으로 덕을 본다

정주시 신평농장 제7작업반에서 지역개선의 땅도를 찾아주고 힘찬 투쟁을 벌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미 수십정보의 토지를 개량하고 많은 흙보신비를 생산하여 일과농수를 위한 담요를 마련해가고있다.

이성과는 자력갱생이 살길이라는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지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여온 파정에 이복된 지방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강적이며 인민적인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조국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사실 몇년전부터 작업반에서

는 토지개량목표를 세워놓았지만 주변에 석회석이 없다보니 이 사업을 원만히 내밀지 못하고있었다.

자력갱생이 살길이라는 당의 뜻을 뼈에 새긴 작업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달도록 뛰어들었다.

그 파정에 이 지방에서 오래된 인물이 있었다는 한 농인이로부터 몇 포구리에서 굴진되어 인심이 깊어지니 풀려있는 토지소회대용으로 비용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작업반장은 연구사들을 만나 토론하는 파정에 굴진에는 팔시용합량이 적지 않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작업반원들을 이끌고 언땅을 파고 시추를 하기 시작하였다. 몇몇번의 실패 끝에 마

# 제대병사의 《고향집》

개성시 개풍1동 100인민반에 살고있는 한동혁, 함영애부부

지미 세상을 떠났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받게 되었다.

그때 그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실낙에서 《우》를 맞은 자랑스런 누누에게 써보내며 앞으로 군사부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누가 그들 집에게 찾아올것이다.

마음속에 깊이 붙어있는 그의 이러한 남다른 고민을 최전연초의 병사들을 위해 오렌 나날원근군을 견고히한 한동혁, 함영애부부들이 알게 되었다.

그들부부는 나라에 충성하던 부모들의 뜻을 잊지 말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 몸바치는 훌륭한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편지 때마다 고무해주고 지성어린 원호를 보내주었다.

# 제대병사의 《고향집》

한명의 기술이 눈에 띄었다.

그 후 한동혁, 함영애부부들은 흥성성성으로 향하였다.

인사라도 하려고 왔다고 하는 흥성성성부부를 만났을 때는 개성시 인신고공률학교 직원인 한동혁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금성이야 아들로 어찌지 오려다. 재만 없지 않다면 우리 여기서 함께 사는것이 어떨까.》

인민반장사업을 하는 함영애동무도 같은 생각이라는듯 함께 웃으며 그날 조선포동향원의 영예를 지닌 흥성성성부부가 제대병사는 지난해 8월이던 때부터의 뜻을 잊지 말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 몸바치는 훌륭한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편지 때마다 고무해주고 지성어린 원호를 보내주었다.

제대병사는 그의 말걸음은 어느 사이에 침부되던 정다워진 한동혁, 함영애부부가 살고있는 개성시 개풍1동 100인민반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이별가정에 또



새 학년도 교수준비사업에 실속있게 하고있었다. -보통강구역 대보초학교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